

'10억 깎여도 17억원' 추신수 '연봉킹'...이정후 11억원 눈길

FA·다년 계약 제외 추신수 연봉 1위...오승환 14억에 옵션 3억
이정후, FA·다년 계약·복귀 해외파 제외 첫 연봉 10억 돌파

10억원의 삭감도 추신수(41·SSG 랜더스)의 입지를 흔들 수 없었다.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몸값'은 큰 의미를 지닌다. 연봉은 곧 선수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자존심이다.

추신수는 2023시즌 17억원을 받고 뛰는 지난해 27억원에서 무려 10억원이 깎인 금액이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 연봉 순위에서 추신수의 존재감은 여전히 가장 크다. 추신수가 올해 받는 17억원은 프리에이전트(FA), 다년 계약을 제외한 선수 중 최고 연봉이다.

추신수는 KBO리그 입성 2년 차이던 지난해 팔꿈치 등 부상 여파 속에 112경기를 뛰며 타율 0.259, 16홈런 58타점 77득점 15도루의 성적을 냈다. 개인 성적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팀의 창단 첫 통합우승에 힘을 보탰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진 추신수를 SSG가 붙잡고, 추신수는 KBO리그 세 번째 시즌에 도전장을 냈다.

추신수와 동갑내기 오승환(41·삼성 라이온즈)도 삭감된 연봉을 받아들였다.

오승환은 지난해 16억원에서 2억원 줄어든 14억원을 받고 뛰는 지난해 성적에 따른 옵션 3억원이 포함된 이월 충족할 경우 올 시즌 최대 17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오승환은 지난 시즌 6승2패2홀드 31세이브 평균자책점 3.32를 기록했지만 큰 기복 속에 고전했다. 팀도 7위에 그쳐 가을야구 진출이 좌절됐다.

이에 오승환은 구단에 2023시즌 연봉 백지 위임 의사를 밝혔고, 구단은 고심 끝에 오승환의 연봉을 책정했다.

보장 연봉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오승환은 올해 제 기량을 회복한다면 명예회복과 함께 인센티브까지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번 겨울 연봉 계약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이름은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25)다.

3년 차이던 2019년부터 매년 연차별 최고 연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이정후는 '7년 차'인 올해 연봉 11억원을 받는다.

FA, 다년 계약, 복귀한 해외파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단년 계약 선수가 10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건 이정후가 KBO리그 최초다.

프로 입성 후 빠르게 자리 잡은 이정후는 연봉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9년 2억3000만원, 2020년 3억9000만원, 2021년 5억5000만원, 2022년 7억5000만원을 받아 3-6년 차 연봉 최고 기록을 매년 새롭게 썼다. 7년 차가 된 올 시즌엔 11억원으로 새 역사를 열었다.

키움 이지영(37)은 5억원에 2023시즌 연봉 계약을 맺고 개인 한 시즌 최다 연봉 기록을 썼다.

2020시즌을 앞두고 키움과 3년 FA 계약을 맺었던 이지영은 2022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됐다. 일반 연봉 계약 대상으로 분류된 그는 FA 계약 때인 지난해(3억원)보다 2억원 오른 5억원에 사인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예고했다.

LG 트윈스 고우석(25)과 KT 위즈 고영표(32)는 이번 시즌 나란히 4억3000만원을 받는다.

고우석은 지난해 2억7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오른 연봉 4억3000만원에 계약했다. 고영표는 지난해 3억원에서 1억3000만원 이상된 4억3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찬바람에 아쉬움을 삼킨 이들도 있다.

NC 다이노스 박석민(38)은 지난해 7억원에서 93%(6억5000만원)이 깎인 5000만원에 계약했다.

2016시즌을 앞두고 NC와 4년, 최대 96억원



의 FA 계약을 맺었던 박석민은 2020시즌을 마친 뒤 2+1년 최대 34억원에 재계약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NC와 7년 계약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2021시즌 중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석민은 지난해 징계 복귀 후 16경기 타율 0.149, 2타점에 그쳤고 역



대급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5년 차 최고 연봉 타이(5억5000만원)를 작성했던 KT 강백호(24)는 올해 47.3%(2억6000만원)이 삭감된 2억9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한편 FA, 다년 계약 등을 포함한 전체 연봉 순위는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추후 발표된다.

KIA 양현종-이의리, WBC 공인구 적응중 "어색하지만 괜찮아"

내일 대표팀 캠프 합류 일정 소화

KIA 타이거즈 국가대표 좌완투수 양현종(35)과 이의리(21)가 불펜피칭을 하며 컨디션 조절했다.

양현종과 이의리는 지난 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슨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스프링캠프에서 불펜피칭을 진행했다. 양현종은 이번이 첫 번째 불펜피칭, 이의리는 두 번째 불펜피칭이다.

첫 불펜투구에서 30구를 던진 양현종은 "아픈곳 없이 잘 던졌다. 첫 번째 불펜 피칭이라 밸런스에 신경을 쓰며 던졌고 결과도 좋았다. 전반적으로 준비한 대로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불펜투구 소감을 밝혔다.

이의리는 "두 번째 불펜피칭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다. 총 47구를 던졌고 내가 던지는 구종(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은 다 던졌다"라고 말했다.

오는 3월 개최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로 선발된 양현종과 이의리는 WBC 공인구(메이저리그 공인구)를 던지면서 투구 감각을 익히고 있다. WBC 공인구는 KBO리그 공인구보다 솔기가 낮고 미끄러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투수들도 있다.

양현종은 "WBC 공인구로 직구, 슬라이



더, 커브, 체인지업을 던졌다. 메이저리그에서 썼던 공과 같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은 없지만 오랜만에 던져 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긴 하다. 던질수록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는다"라며 WBC 공인구에 금방 적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리는 "지난번 피칭 때보다는 WBC 공인구가 살짝 미끄러운 느낌이였다. 큰 불

편함은 없었다. 앞으로 2-3차례 불펜투구 후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표팀에 합류하도록 하겠다"라며 WBC에 나서는 각오를 다졌다.

KIA 스프링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양현종과 이의리는 오는 14일 대표팀 캠프에 합류해 WBC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뉴스



이해인(가운데)과 김예림(왼쪽)이 10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 브로드무어 월드 아레나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 여자 싱글 시상식 중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연아 이후 14년만' 피겨 이해인, 4대륙 선수권 우승

"쇼트 아쉬움 빨리 잊고 프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보여드려"...김예림 은메달 수확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세화여고)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은퇴) 이후 14년 만에 우승했다.

이해인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브로드무어 월드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4.96점, 예술점수(PCS) 66.75점으로 합계 141.71점을 기록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69.13점으로 6위에 그쳤던 이해인은 프리스케이팅에서 분전하며 총점 210.84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싱글 선수의 4대륙 선수권 우승은 2009년 김연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던 이해인은 1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이해인은 이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음악에 맞춰 연기를 펼쳤다. 흠 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쇼트 프로그램에서의 아쉬움을 모두 만회했다.

경기를 마친 이해인은 매니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임했다. 쇼트 경기에서 아쉬운 점들을 빨리 잊고 프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드려 정말 기쁘고 값진 메달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보내주시는 응원이 큰 힘이 됐다. 남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즐겁게 훈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1위(72.84점)에 올랐던 김예림(단국대)은 프리스케이팅에서 136.45점을 받아 총점 209.29점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예림은 "지난해 동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는데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클린 연기가 목표였는데, 마지막 실수가 조금 아쉬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한 것 같다.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셀틱 입단 후 첫 골' 오현규 "감독, 동료, 팬 성원 덕분"

스코티시컵 16강전서 데뷔골
현지 매체도 평점 7점대 '호평'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명문 셀틱 입단 후 4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트린 공격수 오현규(22)가 코치진과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오현규는 12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 파크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스코티시 컵 16강전 세인트 미렌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35분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었다.

후반 18분 교체로 들어온 오현규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데뷔골까지 터트렸다.

캡틴 맥그리거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맞고 흐르자 채도하며 오른발 슈트로 골망을 갈랐다.

셀틱은 오현규의 데뷔골과 하타데 레오(일본)의 멀티골 등을 앞세워 5-1 대승을 거뒀다.

오현규는 경기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득점 후 세리머니 사진을 올리며 "팬들, 감독님, 모든 코치진과 동료들 덕분에 득점할 수 있었

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골을 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수원 삼성을 떠나 셀틱에 입단한 오현규는 1월30일 데뷔전을 치른 뒤 이후 팀의 4경기에 모두 교체로 출전했다.

출전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데뷔전에서 8분을 뒀던 오현규는 이후 2경기에서 15분, 11분을 소화했다. 그리고 이날은 가장 많은 27분간 활약했다.

팀에서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 상대 퇴장을 유도했고 이날은 직접 골까지 책임졌다.

현지에서도 호평이 쏟아졌다. 글래스고 라이브는 오현규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골을 넣기 위한 위치에 있었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더 많은 걸 보여줄 것 같았다"고 극찬했다.

BBC도 평점 7.73점과 함께 "문전에서 빠르게 반응해 데뷔골을 넣었다"고 호평했다.

셀틱 구단도 공식 트위터에 메일 화면을 오현규의 세리머니 사진으로 바꾸며 데뷔골을 축하했다.

지난 시즌 K리그 1수원에서 팀 내 최다인



13골(3도움)을 넣은 오현규는 2022 카타르월드컵 예비 명단에 포함돼 27번째 선수로 16강을 함께했다.

이후 셀틱의 러브콜을 받고 올겨울 이적시장에서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뉴스

손흥민 "역전패 슬프고 실망스러워...큰 교훈 될 것"

토트넘, 레스터전 1-4 역전패...손흥민, 리그 5경기째 침묵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31)이 팀의 역전패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12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EPL 23라운드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1-4로 역전패했다.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와 첫 맞대결에서 마수걸이 득점이자 헤트트릭을 작성했던 손흥민은 이날 선발로 나와 플라임을 소화했지만, 침묵했다.

정규리그만 따지면 5경기 연속 무득점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4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현지 방송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무척 슬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기를 잘 시작했고, 기회를 만들었지만 너무 빨리 1-1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어려운 경기를 했다"며 "상대는 냉정했고 모든 기회를 살렸다"고 덧붙였다.